

대구주보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2015.5.31.(나해) 제1946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주세페 데 리베라, 『성삼위』(c1635).
캔버스에 유채, 프라도 박물관, 스페인 마드리드.

† 오늘의 전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6-20 참조)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사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도리를 우리 머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드님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 신명 4,32-34,39-40 **제2독서** 로마 8,14-17 **복음** 마태 28,16-20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친다.



하느님을 만날 용기를 내세요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청소년국장

〈상황 1〉

“주일 미사에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고3인데요? 고3이 어떻게 성당에 가요?”

“고3은 주일 미사에 나오면 안 되니?”

“고3 때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인생이 편해져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고3 학생과의 대화입니다. 고3은 편안한 인생을 위하여 공부만 해야지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일학교에 잘 나오던 학생들도 고3이 되면서 절반 정도만 주일미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3은 공식적인 냉담기로 선포해야 할 판입니다.

〈상황 2〉

본당 중고등부 학생회 간부 연수 중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부모님을 잘 모실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신감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복을 위하여 좋은 대학과 돈이라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위하여 ‘거짓된 보화’에 마음이 끌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 잘못된 시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2015 청소년 주일 담화문 참조). 시험 성적이나 대학, 직장, 재물 등은 참된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행복의 원천인 하느님과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학교 공부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 등하교 할 때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사 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일주일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은총을 받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매일 한 줄씩이라도 읽는다면 하느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마음을 잡고 공부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행복의 원천인 하느님을 만난다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며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용기를 내십시오.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구에서 지난 5월 10일(부활 제 6주일)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실시한 2차 헌금 255,460,520원을 네팔 지진 피해자 재해 의연금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보냈습니다. 모아주신 정성에 감사드리며 어려움에 처한 네팔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제30차 청소년 주일 담화문(요약)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지난해에 우리는 산상 설교의 포괄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참행복에 관하여 성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여섯 번째 참행복에 관하여 성찰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창세기의 첫 장들은 우리가 부름 받은 놀라운 ‘참행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 자연과, 우리 자신과 각각 나누는 온전한 친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든 선과 행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히는 악의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특히 우리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보화에 마음이 끌리거나 거짓된 보화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낮이나 밤을 새워가며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선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해야 하는 인간 소명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 하라고 권유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통속적인 것으로, 특히 단순히 성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널리 퍼진 시류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시류를 거스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또한 행복해질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바라십니다. 500년 전 스페인

에서 태어난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저는 하느님을 뵙고 싶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성녀는 기도의 길에서 “우리가 사랑받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자서전』, 8,5 참조).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경 읽기에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면 복음서에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매일 한 두 줄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 형제자매의 얼굴에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자신을 굽히고 자신의 삶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나눌 줄 압니다. 기도 안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을 이루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거나 곧 느끼게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봉헌 생활이나 사제직의 부름을 받았는지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행복해질 용기를 내십시오!

바티칸에서
2015년 1월 31일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에
프란치스코

가족은 종합병원의 의사

손상오 루카 신부



가족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모와 미혼자녀로서 이룬 기초가족 혹은 핵가족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조직의 기본 형태로서의 가족 개념은 민족과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말한 가장 기본적인 핵가족 개념뿐 아니라 조부모와 형제가족까지 포함한 대가족 제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의 사회에서의 가족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개념과는 매우 다른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가령 모계사회에서 가족이라 할 때 친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어머니의 남자형제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시사회에서는 혈통이 중시되어 혈연에 의해서만 가족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반면 방대한 대가족 사회에서는 혈연과는 관계없이 사돈의 팔촌까지도 가족이라 말하기도 한다.

한때는 사회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가족개념을 사용했지만, 인류학적인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매우 다양한 변형의 가족형태가 발견되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 개념과는 잘 들어맞지 않아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범주를 결정짓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오랜 전통 속에 지녀온 가족개념은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혼인가족으로서의 부부관계가 혈연관계로서의 가족개념보다는 덜

가족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말은 혼인가족보다 혈연가족의 개념이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생각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자녀와의 관계는 끊지 못해도 이혼은 쉽게 생각할 위험이 크다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혈연가족 못지않게 혼인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가족개념이 끊어질 수 없는 혈연가족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이혼이 증가하고 가족사회는 점점 붕괴될 가능성이 많아 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부의 결합을 숭고한 성사로 거룩하게 하시고, 풀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도록 기도하는 가톨릭의 혼인성사 개념이 더 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은 종합병원이란 말이 있다. 생존경쟁의 전쟁터에서 상처 나고 스트레스 받은 지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올 때 가족들은 모두가 위로와 힘을 주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깥에서 받은 상처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의사가 되어 서로를 치유하는 종합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은 무심코 던지는 말들로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나는 오늘 훌륭한 의사의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아야겠다. **필문**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한 안목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문제가 많은 8살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전혀 집중을 못하는데다 떠드는 건 예사고 숙제도 잘 해오지 않아 성적은 늘 꼴찌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위 ADHD(산만 증후군)가 심한 아이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몇 번이고 야단을 치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부모님에게 이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 아이의 어머니는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고 어느 심리 상담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상담사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그 아이를 관찰하였습니다. 한참 후 상담사는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엄마하고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이 방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하고는 라디오를 켜 놓은 채 어머니

와 함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지 어머니에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아이를 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 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방안을 돌아다니며 너무나도 우아하게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춤에 너무나도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한 것이 도리어 고통인 것이지요.”

그 아이는 춤을 추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매일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인 “질리언 린(Gilian Lynne)”입니다. 그녀에 의해서 “캣츠”, “오페라의 유령”등과 같은 멋진 뮤지컬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민호**

금주의 성인

5월 31일	성녀 맥틸다(동정녀, 에텔슈테텐, 1125~1160년), 성 칸시아노(순교자, 304년) 성녀 베드로닐라(동정순교자, 로마, 251년경), 성 칸시오(순교자, 304년)
6월 1일	성 에네코(수도원장, 오나, 1057년), 성 카프라시오(수도원장, 레앵스, 430년경) 성 유스티노(교부, 순교자, 호교론자, 100~165년), 성 유벤시오(순교자) 성 팜필로(신부, 순교자, 309년)
6월 2일	성 니체포로(주교, 증거자, 콘스탄티노플, 758~828년), 성 마르첼리노(신부, 순교자, 303년경) 성녀 블란디나(순교자, 리옹, 177년), 복자 사독(신부, 순교자, 1260년) 성 에라스모(주교, 순교자, 포르미에, 303년경), 성 에우제니오 1세(교황, 657년) 성 포티노(주교, 순교자, 리옹, 177년)
6월 3일	성 가롤로 르왕가(순교자, 우간다, 1860~1886년), 성 리파르도(신부, 6세기경) 성 모란도(선교사, 클뤼니, 1115년), 성녀 올리바(동정녀, 아나니) 성 체칠리오(신부, 카르타고, 248년), 성 케빈(수도원장, 글렌달로그, 618년) 성녀 클로틸다(왕비, 474~545년), 성녀 바울라(동정순교자, 니코메디아, 273년)
6월 4일	성녀 사투르니나(동정순교자, 아라스), 성 퀴리노(주교, 순교자, 크로아티아, 308년) 성 프란치스코 카라치올로(신부, 설립자, 1563~1608년)
6월 5일	성 도로테오(신부, 순교자, 티레, 362년), 복자 마인베르크(주교, 파더보른, 1036년) 성 보니파시오(대주교, 선교사, 순교자, 크레디톤, 675~754년), 성녀 치리아(순교자) 성 산치오(소년, 순교자, 851년)
6월 6일	성 노르베르토(대주교, 설립자, 마그네부르크, 1080~1134년), 성 필립보(부제, 1세기경)

■ 석가탄신일 맞이 동화사 방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1일(목) 오전 11시 동화사를 방문하여 주지 덕문스님에게 석가탄신일 축하 메시지를 전 하셨습니다.

사진 및 기사제공 : 월간 <빛>

■ 한울타리(대건, 효성) 견진성사



대주교님께서는 5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대건고등학교 대건관에서 116명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2주간, 2015. 5. 31.~6. 4.>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편 1-8장	9-16장	17-20장	21-25장	26-32장	33-38장	39-4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시편』

- 히브리말 명칭은 ‘찬미의 노래들’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말 명칭은 ‘현악기를 동반한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50편에 이르는 시편은 하느님과 그분의 위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 신앙고백 이요 구원 역사의 요약이다. 이 신앙고백과 구원 역사의 개요는 시편에서 찬양·탄원·감사·신뢰·원망·호소 등의 기도 요소들을 결들인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시적(詩的)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동시에 시편은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전례에 사용되었다. 개인 기도의 예로써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순간에 특히 당신 생애의 중요한 죽음의 순간에서 조차 시편으로 기도(22,2: 31,6 참조)를 하셨다.

문의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전교를 잘 하려면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1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6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6일(토) 10:00 프란치스코눔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첫토요신심미사	6월 6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6.7(매달 첫번째 주일) 11:00
장소: 서울 성북동 본부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선교사제 성소문의는 언제나 환영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6.7(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문의: (02)924-3048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6.6(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존경하올 그릇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587-7300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6.5(금) 18:00~7(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6.16(화)~17(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11 개인지도식)

2박 3일 피정: 6.12(금)~14(일)
8일 피정: 7.10(금)~19(일)
장소: 보은 메리워드 영성의 집
문의: (043)542-6995 / (010)7254-6530

교육 | 모집

마태25 자선 바자회

가난한 이웃과 동행하기 위한
나눔잔치 초대
일시: 5.31(일) 10:00~16:00
장소: 경산어버이성경학교(임당역3번출구)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 토 14:00~16:00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 (010)3817-5255
<http://www.footfather.com>

빛테제기도 초대

일시: 6.13(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테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청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젊은이와 함께 하는 렉시오 디비나

일시: 6.21(매월 셋째 주일) 10:00~16:00
주최: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010)5230-2986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일시: 7.25(토)부터 총4차, 1박 2일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호피 참조)
주제: 주님의 숲에서 노~을자
인원: 차수당 30~40명 (분당별, 선착순)
문의: 783-9817 / (010)9868-9817

교향청어린이전교회 꿈나무 여름캠프

기간: 7.28(화)~30(목)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교육관
대상: 초 3~6학년 / 선착순 140명
참가비: 5만 원 (비회원 7만 원)
문의: (02)2268-7103 / pmsk@pmsk.net

대구가르멜수녀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문의: (010)3375-4408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안전여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Car Body Make-up
차량의 몸체에 화장을 입히자

차량광고 전문업체 · 1급정비사업체

CBM 대동정비

차량광고도색, 차량램핑, 실사출력
학원차량전문, 기업차량도색 및 랩핑
특수도장 대형 열처리 부스 3기 보유

www.dgcar.co.kr 황 웅 호(루시아노)
☎053)963-4794 010-5913-8417

척추 · 관절 및 뇌 · 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CT 및 초음파 검사
영상투시 및 프롤로 치료
뇌졸중, 치매, 어지럼증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재거리 ☎ 053)628-4111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글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순우(요셉)
범여네거리 글랜드호텔 건너편 범여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6번 출구)

프로보청기

미국·덴마크 보청기(세계1위~5위) 렌탈·판매

김은연(세실리아)

☎ 010-6481-8848
☎ 053)421-8588

동인로타리에서 경대병원방향 10m
(세기보청기 본사 옆)

행사 | 모임

대구시립교향악단 시민행복콘서트

일시: 6.10(수) 19:30

장소: 성모당

문의: 250-1475<무료공연>

복자성당 사랑 나눔 큰잔치

기간: 5.30(토) 11:00~31(일) 17:00

내용: 본당설립45주년 기념, 50주년 (2020년)준비 및 지역 복음화와 이웃과 함께 하는 바자회

품목: 생필품, 예술품, 먹거리, 주류 등

고성기도회 설립 30주년 찬양의 밤

일시: 6.1(월) 19:00

장소: 고성성당 대성전

강사: 정기모(요한보스꼬) 신부

미사 및 안수: 손종현(요한) 신부

문의: 고성성당, 352-1412

안토니오 성인 축일 특강 및 유해 헌시

일시: 6.13(토) 19:30, 월배성당

강사: 윤종일 디토 수사(관구장)

주최: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문의: 월배성당, 636-1302

교육 | 모집

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6.20~7.26(5주간, 매주 토)

※ 7.18(토) 휴강 / 5주차 가족피정(1박)

장소: 3대리구 성토마스 성당 / 15만 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대구대교구 청소년국

일본 나가사키 청소년 순례단 모집

일시: 7.17(금)~20(월)

대상: 중고등학생(신청순 30명)

참가비: 70만 원 / 마감: 6.1(월)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관덕정 주관 6월 영성특강

일시: 6.6(토) 16:00

강사: 하태진(스테파노) 신부

(초남이성지)

문의: 관덕정, 254-0151

6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6.13(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성경은 인생문제의 총체적 해답서

강사: 이관배(스테파노)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 6.1(월) 9:30, 11:30

오카리나성가: 6.1(월) 12:30

발성법/가곡성가: 6.2(화) 13:30

하모니가성가: 6.3(수) 12:00

문의 및 신청: 254-6115

학산야간중고등학교 주간반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연중접수 / 무료수업

장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월성동)

대상: 무학, 초졸, 중퇴자

내용: 중등검정고시준비(14:00~16:00)

문의: 담당 김승옥, 634-7230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동희(요셉), 김동춘,

최영기(알베르토)

문의: 253-9550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 ~ 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6월 6일(토), 13일(토)

예수성심시녀회 이춘조(세시리아)수녀

6월 20일(토), 27일(토)

예수성심시녀회 김윤선(마리요셉)수녀

※ 특집 프로그램은 수술 전문 대구안과의원 후원입니다.

경일 신경과·내과

- 처매 / 뇌졸중 초기검진
예약상담 053) 268-2525
- MRI 예약상담 053)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대표전화 053)652-2525 www.kinm.co.kr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우)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턱시도대여 | 메이킹 · 헤어디자인

김 대 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아개 무를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성근 베드로
신장아 세부전문의 배성준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수입자 전문 서비스센터 / 자동차 토털서비스

에스모터스 MOTORS

대표 강 용 보(로마노) 053)766-3200
HP.010-3539-6833

"정직한 견적! 고품격 서비스!"

수입자 정비, 보험 / 일반 사고차량 수리
수입/국산 렌트카, 중고 수입차 매매
번팅, 블랙박스, 튜닝, 코팅, 광택

희망네거리에서 수성시장 방향 10M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참소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피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